

무주대대 원점서 재검토 촉구

무주군의회, 육군 제35사단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개편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19일 제 275회 임시회에서 ‘육군 제35사단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개편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7일 이해양 의원의 5분 발언으로 공론화 필요성이 불거진 후 이어진 이번 건의문 채택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2021년 말까지 무주대대를 진안대대로 통합하도록 하는 방침에 대한 대응으로서, 무주대대를 지키려는 지역민들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무주는 교통여건 및 지리적 특성으로 예부터 군사적 전략 요충지이며, 무주위성항법사무소·무주양수발전소·적상산 사고·국립태권도원·무주덕유산리조트 등 주요 국가시설 및 문화유산 등이 위치해 유사 시 지역방어에 대한 시급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밝혔다.



무주군의회가 19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육군 제35사단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개편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국방개혁은 타당성 있는 검토 분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에 △일방통행식 국방개혁의 군 통합개편 중단 및 무주군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와 소통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검토분석을 통한 부대 통합

이전 추진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 이전 계획 즉시 철회 및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해당 건의문은 국회, 국방부, 육군제35사단 103연대, 육군제35사단7733부대에 송부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는 1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장을 찾아가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 찾아 선수·지도자 격려

황인홍 무주군수는 1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장을 찾아가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무주군체육회 송재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각 학교 인솔 교사, 종목별 지도자, 학부모와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설원에서 땀을 흘리는 여러분을 보니 추위가 싹 가시는 듯 든든하다”라며 “동계체육대회가 힘들게 연습한 보람을 찾는 기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승부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의 건강”이라며 “대회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기량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했다.

무주군에서 올해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을 비롯해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알파인, 스노보드 종목에 참가한 전북대표 선수단은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5명을 비롯해 도체육회 소속 선수단, 그리고 무주와 무풍, 안성, 설천, 부남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선수 등 96명으로, 경기는 오는 21일까지 개인과 단체 종목으로 진행된다.

한편, 18일 열린 바이애슬론 개인경기(4km, 12.5km, 15km)에서는 무주출신 선수들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메달을 획득했으며 전북이 19일(오전 10시) 현재 19개의 메달(금 8, 은 7, 동 4)로 종합 3위를 기록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광환 무주군의원,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개선 촉구

“반딧불이 서식하기 좋은 자연친화형 생태환경 조성해야”

무주군의회 이광환 의원이 19일 제27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구역 관리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현재 무주를 가림마을·무풍면 계부마을·설천면 수한마을 3개소가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해당 구역에서의 반딧불이 출현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반딧불이 보호구역에서의 반딧불이 출현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반딧불이 보호구역 주변마을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및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여론 또한 있음을 전하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구역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자연친화형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반딧불이 생태환경 조성 노력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반딧불이 보호구역 및 인근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을 통하여 반딧불이 생태환경 조성의 주민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한 “무주의 청정이미지와 반딧불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무주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반딧불이가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할 때”라며, 내실을 다지고 환경개선을 실천하여 반딧불이가 넘쳐나는 청정 무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산불 사전 예방 위해 초동진화체계 등 구축

장수군은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

19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사전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 각 읍·면 산불감시원 44명 등을 배치했으며, 산불진화차량 7대 등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산불의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월 체력검정 등을 진행해 선

발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소각금지 계도와 농산 부산물 파쇄지원,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산지정화 등 각종 산림사업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군은 관내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불 취약지에 홍보 게시물을 부착하고 산불 발생 초기에 즉시 헬기를 협조 받을 수 있도록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및 전북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추진 평가 최우수상 수상

장수군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추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추진 기관평가에서 전라북도 최초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개소하는 등 주민 납세편의 증대와 민원처리 만

족도 향상의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청사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선제적으로 설치한 우수 지자체 40개소(광역 11, 기초 29)를 선정했으며 총 20여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했다.

앞서 장수군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건의 및 광주지방국세청 방문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전북 최초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개소했다.

장수군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군청 내에서 국세 및 지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주민의 납세편의가 증대되고 민원처리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지방세정 종합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이 전북도가 시행한 ‘2020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정 평가는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분야 세수실적 및 세정운영에 관한 10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체납세 징수와 세수실적, 세무업무 민원안내 등의 세정운영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재무과 감대식 과장은 “올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건 그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군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세정·징수 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세정운영을 해나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2019년 상·하반기에도 2회 연속 체납세 징수 실적 1위로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해빙기 급경사지 붕괴위험 65개소 안전점검

진안군이 해빙기 사고 위험이 높은 관내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65개소에 대해 읍·면과 합동으로 12개반을 편성하고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겨울철 열어있던 땅이 녹으면 지반이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군은 도로, 주택, 공공시설 등의 급경사지에 대한 전수 점검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급경사지 배수 상태, 비탈면 이상 유무, 옹벽 균열 여부, 배수로 상태, 낙석 발생 및 붕괴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기간 동안 긴급 상황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과 보수·보강 등 신속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철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